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SCAVENGE THE STARS

가제 : 별을 찾아

저자 : Tara Sim

출판사: Disney Hyperion

발행일: 2020년 1월 7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수십 만 달러 규모로 출판 계약 체결 / 프랑스 판권 계약**

*** “취감기는 파도처럼 깊고 반짝이는 이야기. 첫 장부터 끌어당겨 절대 헤어날 수 없게 할 것이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Ash Princess』의 작가 로라 세바스찬**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쿼퀴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 배 위에서 물고기 내장을 빼내고, 갑판 위를 닦고, 찢어진 돛을 꿰매며 얼른 시간이 흘러가기만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다. 부모와 다른 가족들이 진 빚 때문에 노예처럼 일해야 하는 수십 명의 이 아이들은 배에 오르는 순간부터 이전의 삶은 모두 지워야 한다. 돈 외에는 아무 것도 관심이 없는 포악한 선장이 지어준 가명을 써야 하고, 어깨에 짊어진 빛의 규모에 따라 정해진 기간을 다 채울 때까지 죽어라 일해야 한다. 벌써 7년째, 이 노예선 생활을 견뎌온 ‘실버피시’는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그 긴 시간이 거의 끝나갈수록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낀다. 엄마는 형겅 인형을 손에서 놓지 않고 늘 노래를 흥얼대던 작은 소녀가 손톱 밑이 생선 피로 시커멓게 물들고 눈가도 시커멓게 가라앉아버린 지친 자신을 알아보기나 할까? 신들에게 우유와 허브를 바치고, 엄마가 자리에 누우면 얼른 달려가 품속을 파고들던 사랑스러운 딸아이 아마야가 무엇에도 큰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남기 위해 무섭도록 매서운 눈빛을 가진 실버피시가 된 것을 엄마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두려웠지만, 매번 설렘이 더 크게 다가와 하루도 조용히 넘어갈 날이 없는 노예선의 각박한 생활을 견디게 해주었다. 선장의 눈에 조금만 벗어나면 그 즉시 매질을 당하고 노동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이제 아마야가 할 일은 최대한 숨죽여 조용히 지내면서 남은 며칠을 잘 견디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이 배 근처에 나타났을 때, 아마야는 이 다짐을 잊고 만다.

몸집이 더 작은 꼬맹이들이 위험천만한 돛대 꼭대기까지 올라가 청소를 하면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를 만큼 제 몸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노예선 생활 중에도 늘 더 힘든 아이들을 챙겼던 아마야는 익사 직전인 남자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다. 일하던 아이들이 전부 그 남자를 보며 발을 동동 구를 때, 선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죽게 내버려두라고, 얼른 제자리로 돌아가 하

던 일이나 계속 하라며 욕박을 질렀다. 이제 며칠 후면 자유의 몸이 된다는 사실도 잊을 만큼 공숨이 끊어질 것 같은 남자의 상태가 너무 걱정이 된 아마야는 결국 그물 하나를 챙겨서 그 남자가 있는 쪽으로 있는 힘껏 던진다. 얼른 잡으라고 비명을 지르자, 겨우 그 말을 들은 남자는 그물을 붙들었고 무사히 구출되지만 제법 덩치가 있는 그를 끌어당기느라 그물이 찢어지고 만다. 아마야의 뒤에서 이 광경을 옥하며 지켜보던 선장을 붉은 손으로 뺨을 때린 것으로 모자라, 명령을 어긴 죄, 귀중한 그물을 망가뜨린 죄까지 더해 노동 기간을 4주 더 늘린다고 외쳤다. 곧 엄마 생신인데, 그 전에는 반드시 집에 돌아가고 싶었는데 한 달이나 더 이 지옥 같은 배위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구출된 남자는 절망한 아마야에게 뜻밖의 제안을 꺼낸다.

금단추가 수십 개 달린 옷을 입고 있었던 ‘분’이라는 이름의 남자는 아마야에게 어쩌다 이런 곳에 끌려왔냐고 묻고, 아마야는 7년전 벌어진 끔찍한 사건을 이야기한다. 비 제국과 태양 제국 사이에 자리한 모레이 시에서 진주를 캐내서 판매하는 상인으로 꽤 성공한 아마야의 아버지는 난데없이 진주를 밀수한 죄인으로 낙인 찍힌다. 전쟁이 끊이지 않던 두 제국 사이에서 최대한 중립을 유지하던 모레이 시에서 밀수를 중범죄로 여기는데, 진주를 비 제국으로 몰래 넘겼다는 혐의가 주어진 것이다. 저지른 적도 없는 죄를 뒤집어쓴 아버지는 곧바로 교수형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빚은 남은 가족들에게 떨어졌다. 분은 아마야의 이야기를 듣더니, 그 사건의 전말을 다 아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긴다. 그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얼마 후, 모레이 시에는 화려한 보라색 돛을 단 거대한 배가 들어온다. 시민 전체의 관심이 배 주인에게 쏠린 가운데, 놀랍도록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모습을 드러내며 모두를 놀라게 한다. 야마 백작 부인이라는 이 낯선 여성은 출신도, 직업도, 모레이 시를 찾아온 목적까지 모든 것이 베일에 싸여 있지만 재산이 제법 있는 사람들조차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엄청난 돈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그 누구도 감히 그녀의 정체를 캐낼 생각도 하지 못한다. 하지만 한 때 모레이 시에서 가장 잘 나가는 상인이던 카몬의 아들, 카요는 남들과 다른 눈으로 야마 백작 부인을 주시한다. 남부러울 것 없이 풍족하게 살았던 카몬의 집안은 카요의 여동생, 소리아가 치명적인 병에 걸린 후부터 급속히 퇴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비싼 약값과 치료비를 즐기치게 대느라 재산은 바닥이 났지만 소리아는 도통 나올 기미도 보이지 않아 결국 빚더미에 오르고 만 것이다. 도박의 도시인 모레이 시에서 한창 도박에 심취했다가 겨우 정신 차린 카요는 궁지에 몰린 집안 사정을 단번에 해결할 방법을 찾고, 야마 백작 부인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깨닫는다.

아버지를 죽이고 가족 모두를 망친 자들에게 피의 복수를 하기 위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온 아마야, 죽기살기로 백작 부인을 노리는 카요, 두 사람의 운명은 비극적인 과거의 사건과 엉키고 서로가 간직한 무서운 비밀이 조금씩 드러난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떠올리게 하는 치밀한 복수극이 로맨스, 모험과 함께 펼쳐지는 흥미 만점 소설이다.

<저자 소개>

타라 심(Tara Sim)은 홀린스 대학교에서 영어와 문예창작을 공부했다. 「Entertainment Weekly」, 「Bustle」 등에 소개된 『Timekeeper』 3부작을 썼다.

제목 : ROBIN HOOD: HACKING, HEISTS & FLAMING ARROWS

가제 : 로빈 후드: 해킹, 강도, 불화살

저자 : Robert Muchamore

출판사: Hot Key Books

발행일: 2020년 4월

분량 : -

장르 : YA 소설



*** 현재까지 발표한 저서가 전 세계적으로 1,400만 부 이상 판매된 청소년 도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6년만에 선보이는 4부작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 - 2020년에 돌아온 로빈 후드의 모험**

초록색 쫄쫄이를 입고 깃털 달린 모자를 쓴 소년, 부자들이 가진 재산을 훔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전설적인 영웅 로빈 후드가 긴 화살을 쏘며 금화를 훔치던 시대를 넘어 기관총과 컴퓨터, ATM기가 즐비한 2020년에 다시 돌아왔다. 12세기 시 속에 맨 처음 등장한 후 세익스피어부터 DC 코믹스, 몬티 파이튼, 프랭크 시나트라, 슈퍼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장르,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재탄생된 로빈 후드는 10세 이상 청소년 도서 부문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꼽히는 로버트 무캐모어의 손에서 해킹도 도가 튼 영리한 소년으로 되살아난다. 내년 4월에 선보일 첫 번째 이야기에 이어 2022년까지 총 4권으로 완성될 새로운 로빈 후드 시리즈는 한 때 자동차 생산 지역으로 각광을 받았지만 이제는 몰락한 도시가 되어버린 록슬리를 무대로 시작된다. 가난하고 찌든 생활 속에서도 인간의 도리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들과 무너진 건물, 도로, 도시처럼 도덕성이 무너진 탐욕스러운 범죄자들 사이에서 더 이상 힘없이 당하고만 있지 않으리라 결심한 로빈은 작고 날쌔 몸집과 번득이는 기지를 활용하여 위선적인 어른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내리친다.

열두 살인 로빈과 네 살 많은 형 '리틀 존'이 다니는 록슬리 고등학교는 과거 학생 수가 3천명에 이를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600명도 채 안 되는 작은 학교가 되었다. 오래 전, 1년에 자동차를 100만 대 이상 생산해내던 때만 해도 어딜 가나 사람들로 북적이고, 번성한 산업이나 몰려든 인구만큼 잘 모인 세금으로 록슬리는 살기 좋은 도시로 이름을 날렸다. 치안도 우수하고 깔끔하게 정비된 당시의 도시 풍경이 지금처럼 서둘러 이사를 떠난 사람들이 남긴 흔적과 무너진 낡은 집들로 폐허처럼 변해버릴 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대부분 생계를 겨우 이어가는 가난한 사람들만 남은 록슬리에서도 유독 형편이 쪼들리는 가정에서 나로 자란 로빈은 명석한 두뇌로 학업 성적도 꽤 우수한 편이었지만, 타고난 머리를 다른 친구들을 '돕는' 일에 더 많이 활용했다. 학생부장 선생님 사무실에 몰래 침입하는 것, 그래서 심술궂고 걸핏하면 짜증만 내기로 유명한 선생님의 컴퓨터를 해킹한 후 불쌍한 친구의 성적을 D에서 B 정도로 살짝 고쳐 놓는 것이 바로 로빈의 주특기였다. 또래 친구들은 엄두도 못 낼 이런 일들을 3D 프린터와 몇 가지 간단한 해킹 프로그램으로 똑딱 해결해온 로빈은, 자신의 이 특별한 능력이 늘 게으르고 어리숙하게 보이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곤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동네 아이들이 '너네 아버지 집시냐?'고 놀려댈 만큼 너저분

한 옷차림에 멍한 눈빛이 특징인 아버지가 수십 년 전, 록슬리에서 가장 영리한 아이 중 한 명이었고 지금까지도 록슬리에서 가장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대형 사업체의 대표가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갑자기 급히 돈이 필요할 때, 노트북이나 귀금속 등 가진 재산을 팔아서 현금을 바로 얻거나 은행보다 조금 높은 이율로 소액 대출을 해주는 ‘캡틴 캐쉬’는 록슬리에서 처음 문을 연 이후 큰 호응을 얻어 지점이 100곳 이상 늘어난 대형 사업체가 되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반갑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 캡틴 캐쉬는 다른 아님 로빈의 아버지 아르다 후드가 한 동네 친구였던 마조리, 가이와 함께 폐업한 치킨 판매점을 일일이 뜯어 고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아르다의 두 친구가 생각한 사업 목표는 전혀 달랐다. 어차피 안 쓰는 물건을 손쉽게 처분해서 현금을 얻어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르다 후드의 주된 목표였다면, 마조리는 개개인의 사정이나 이유와 상관없이 최대한 많은 이윤을 남기는데 주력했고 가이는 훗날 물건을 처분해주고, 빌려간 돈을 안 갚는 사람들에게는 폭력배를 보내서 어떻게든 돈을 갚게 만드는 무자비한 짓도 아무렇지 않게 하려고 했다. 결국 아르다 후드는 뜻이 맞지 않아 캡틴 캐쉬에서 나와버렸고, 남은 두 사람은 사업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키워나갔다. 아직도 셋은 한 동네에 살지만 풍족하고 여유로운 생을 즐기는 마조리, 가이와 달리 아르다 후드만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두 아들을 겨우 건사하며 살게 된 것도 이런 복잡한 과거 때문이었다. 로빈의 고모들은 틈만 나면 ‘캡틴 캐쉬’를 그만두지 말았어야 한다고 한탄했지만 로빈은 아버지가 그런 말에 눈도 깜짝 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정의와 도덕을 중시해온 아버지의 곧은 품성이 결국 일하던 곳에서 도둑으로 몰리는 불상사로 이어지자, 로빈은 아버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리라 다짐한다. 그동안 장난치듯 익혀온 해킹 실력과 누구보다 빠른 몸짓을 십분 활용해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모함을 처음 시작한 자들을 찾아 그대로 돌려주어야 한다.

‘돈이 없어도 당황하지 마세요, 캡틴 캐쉬가 도와드립니다!’라는 밝고 명랑한 노래가 쉬지 않고 흘러나오는 매장이 100 곳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누가 내다봤을까? 열일곱 살에 이미 사업적인 소질이 두각을 나타냈던 아르다 후드는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방과 후 아르바이트를 세 건씩 뛰고, 할아버지를 졸라 부족한 돈을 빌리기도 했다. 아르다가 그렇게 고생해서 문을 연 사업을 버려야 했던 더 중요한 이유, 부패한 경찰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양심도 쉽게 내던지는 정치인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본가들의 정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로빈 가족의 믿기 힘든 과거도 밝혀지는 가운데 과연 로빈은 무사히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까? 편리하고 아늑한 길보다 옳은 길을 택하는 어린 로빈의 용감한 투쟁이 재미와 함께 감동도 함께 안겨주는 특별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로버트 무캐모어(Robert Muchamore)는 런던에서 사립탐정으로 일하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읽을 책이 없다는 조카의 푸념을 듣고 쓴 CHERUB 시리즈로 2005년 ‘레드하우스 아동 도서상’을 수상했다. 이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8개국에서 베스트셀러 1위 작가가 되었다. 그 밖에 Henderson's Boys, Home, The Recruit, Class A 수십 편의 소설을 썼다.